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10강 로마의 노예 현자 에픽테토스의 불교 강의

미국의 어느 경영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차이를 아는 사람?"

수양산의 그늘 이번 추서에 시골 바닷가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사촌 장형은 수협이 조합장을 오래 지낸 후, 지금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제가 한번 사고를 친 적도 있습니다. 대학 초년, 집 앞에 대놓은 남의 오토바이를 분유

파개(기)로 시동을 걸고, 기어도 제대로 넣을 줄 모르면서 운전을 했는데, 급제 어느새 보니 파출소 앞에서 푸득 밀려가려고 있었습니

파출소 안으로 끌려들어가니 나는 물은 말에 대답도 않고,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신문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

저는 늘 그 형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과 위로를 어찌 말로 하겠습니까. 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아래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니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었습니

습니

돈이 아니라 존중이 문제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게 어디 돈문제겠습니까. 저는 떠나 살고

결과 어떻게 수습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소상히 세세한 수치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잠깐 들었다 몇 군데 들려가려면 계획이 장형 이야기에 또 두 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

"나나 저들 형수가 제사 모신 것만도 40년이야. 어디 내 조상만이나. 그 비유만 해도 집을 사고 남았을 거다. 그리고 그 땅 내가 아니었으면 진즉 수용되어 흔적없이 사라졌을 것인데... 그 프리미엄도 인정 안 해

렇다고 해도, 장형이 은퇴하고 지금 사장이 어려운 형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고 말해 주었습니다.

엔키리디온의 불교적 잠언 서로 엇갈리는 이 계산법(相)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장부에는 적혀 있지 않은 숫자들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이 잠에 말인데, 기억하십시오. 장부에 있는 액수도 잘 관리해야 하지만,

고 뒤를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로 하여 받은 혜택을, 하늘과 바람과 물뿐만 아니라, 거기 있어서 힘과 위트가 되었던 사람과 사람들을 떠올리고 재삼 기억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천동 속의 먹구름이 울고, 버스의 기사가 온 몸의 근육과 시신을 집중하여 자신을 소모한다는 것을 가끔은 떠올려 봅시다.

형님들, 한 때는 한 자리에 둘러앉아 바가지에 담긴 보리밥을 나누어먹었고, 짹짹 비행기 총탄소리에 형의 손이 이끌려 물속으로 숨었으며, 대학에 합격한 막내 동생을 위해 반지 목걸이를 팔자고 내놓던 형제들이 아닙니까.

로마의 노예 현자 에픽테토스가 우리 집안에 있을 분란의 조짐을 미리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의 어록 <엔키리디온>에는 이런 잠언이 실려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은 보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다른 쪽을 보면 쉽게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형이 그대에게 부당한 짓을 했다고 합시다. 형의 부당한 행동에만 집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

그렇지요, 세상사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화해는 사물의 뒷면을 보면서 시작되고, 지혜는 그도 저도 분별(分別)하지 않는 데서 자랍니다. 그러나 장부의 채무란도 좀 보고 삼시다. 제일 좋은 일은 장부를 들여다 보지 않는 것인디

한국학중앙연구원

숫자 안 적힌 채무란도 보고 삼시다

있지만 가끔 차레나 제사로 형제 친척들이 모일 때, 형님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제사의 차레나 절처럼 같은 사소한 일에도 고집을 양보하는 법이 없고,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동생들의 의견은 대놓고 무시하는 편입니다. 형님 눈에는 아직 몰지 모르는 철부지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다들 어엿하게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자신의 견해를 일구어 가진 어른들입니다. 형님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탓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자 형님은 자신의 채권을 주장했습니다. "그게 뭐 큰일 대수라고 그래... 그동안 내가 저들한테 해 준 것이 얼마데..." 놀라운 기억력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둘러싼 정황이 어떤 것이었으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누굴 만났으며, 그때 무슨 말이 오갔는지, 그리고 그



준단 말이야. 나는 웃으며, 앞의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중 만난 여러 형님들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또 막걸리 잔에 주머니 텅 것이 수월했는데, 고맙다 수고했다는 소리도 변변히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푸념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실사 그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숫자로 적혀 있지 않은 장부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관리해야 합니다.

장부에 아무 숫자도 적혀 있지 않는데, 각자 자기 눈에는 차변의 채권란에 글자들이 떠올라 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적혀 있지 않은 대변의 채무란에 부채가 수도룩고 쌓여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읽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다들 앞만 바라보지 말

주장사파라...

부설거사의 '약속'



조태호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and illustrations. Panels include: '세스님은 남해부근에서 풍량이 심해', '중국어학을 포기', '그곳에서 한스님은 그집의 딸 문화여인의 열정에', '그만 거기서 혼인을 한다', '10여년간 두룬산 천관산 내장산 등에서 수행', '또 다시 수행지 오대산으로 옮기던중', '어허 이럴수가', '이제인 스님에서', '거사가 되는 거려', '헛헛', '소나기를 피하', '잠시 민가로', '비록', '세속이지만', '수행하듯 살겠네', '그렇게 약속하고 세스님은 헤어진다', '혼인을 한 스님은 그곳에서 아들과 딸을 낳고 그렇게 문혀 산다', '그때 그 약속을 나는 지켰소', '그때 어떻게 살았나?', '이 병속의 물처럼 살았네', '세속에 처했으나 깊은 산속 수행하듯', '분별 집착 내려놓고 살았소'.

부설 거사 (淨雪, 2-7): 신라 후기 스님으로 이름은 진광세(陳光世), 파계하였으나 보살의 실천행으로 정진했다 함.

네티즌 교리문답

'탈락(脫落)'의 불교적 의미는?

취업 사수생입니다. 탈락이란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에게 '탈락'이란 단어가 불교용어라고 들었습니다. 탈락과 불교, 서로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이 말들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사수생)

답1: 탈락의 불교적 의미는 집착에서 벗어난 몸과 마음 해탈을 뜻합니다. 세속에서는 낙오의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불교에서는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면, 탈락이란 어느 대열에서 빠져 버린다는 뜻으로 낙오의 뜻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공전에서 탈락되었다"든가 "발령에서 탈락했다" 등이 그것이지요. 세속의 탈락은 이처럼 실패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가 말하는 탈락은 "벗어 버린다"의 의미입니다. 벗어야 할 것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과 몸을 버리는 신심탈락(身心脫落)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과 마음에 집착합니다.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해탈입니다.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가 화합해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사대와 육근이 인연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대는 물질이고 육근이란 눈·귀·코·혀·몸통이·땀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입니다. 이 감각기관이 색깔·소리·냄새·맛·촉감·대상·상상대상과 만나 이루어내는 결과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대가 없어지면 육근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육근작용이 없으면 마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통이도 환(幻)이고 마음도 환(幻)인 거지요. 몸과 마음이 모두 환로 없어지면 오직 청정함만 남습니다. 이런 상태를 신심탈락, 해탈이라고 합니다. (출가사문)

답2: 신심의 탈락과 함께 인어(人我)의 탈락도 중시합니다. 인(人)은 타인을 말하고, 아(我)는 나를 말합니다. 더 발전시켜 풀면 이는 주관이고 인은 객관입니다. 주관과 객관은 인연의 관계를 맺습니다. 인연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인어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상(相)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합니다. 상(相)을 상으로 보지 않았을 때 인간은 여가 됩니다. <금강경>은 이를 계승으로 지어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 라고 말했습니다. <금강경>의 탈락도는 공의 체험을 통한 득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탈락은 해탈이고 해탈은 종교의 최종목표입니다. 세속적인 탈락에 변민하지 말고 불교적 탈락을 위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탈락이 해탈이다)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1.

상식퍼즐

1. 뉴올리언스주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2. 영화 '초록물고기'에서 주인공 한석규의 애칭 3. 불교에 몸담고 있는 성직자 4. 기관차, 선박 등의 신호 장치 또는 그것으로 내는 소리 5. 연행의 앞뒤가 맞지 않음을 이르는 한자성어로 비슷한 말, 모순 6. 아래팔상 3위와 보살상 4위가 봉안돼 있는 전각으로 화엄사에 있음, 국보 제67호.

1. 그리스인의 우주개벽설(kosmogonia)에서 만물발생 이전의 원초상태 7. 비가 올 때 신년 나무로 만든 신 8. 전설상 용이 되려다 못된 큰 구렁이 9. 노사연이 부른 노래로 '저 만큼 앞서가는 님 뒤로...'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유행가 10. 중국 삼국시대인 208년에 후베이성, 자위현의 북동, 양쯔강 남안에 있는 적벽에서 있었던 전투 11. 실제와 다르게 보고 느낌.